ASAN POLL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여론연구센터
아산 데일리 폴 조사결과 요약

전작권 환수 · 방위비분담금협정 · 원자력협정에 대한 인식

2013년 8월 16~31일

김지윤 연구위원

강충구 연구원

이의철 연구원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발표일 직전 3일,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
예) 5월 4일 수치: 5월 1~3일 조사결과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이란?

주요 정치사회 지표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일 발표하기 위해 실사(data gathering)를 3일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이다. 실사와 자료발표의 순환이 3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발표되는 정치사회 지표는 직전 3일간 조사된 결과를 의미한다.

자료 인용 시 반드시 출처(**아산정책연구원 '아산 데일리 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보고서는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 강충구 연구원 (02) 3701-7343, ckkang@asaninst.org
이의철 연구원 (02) 3701-7337, eclee@asaninst.org

8월 주요 조사결과

▶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의견**

그대로 환수 **31.4**%, 환수계획 연기 **32.7**%, 환수계획 폐기 **3.6**%, 모름/무응답 **32.3**%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인지도**

인지 19.8%(매우 잘 알고 있다+어느 정도 알고 있다), **비인지 80.0**%(들어본 적 있다+전혀 모른다)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의견**

너무 많다 **58.6**%, 적정하다 **15.0**%, 부족하다 **1.4**%, 모름/무응답 **26.9**%

▶ **한미 원자력협정 인지도**

인지 20.2%(매우 잘 알고 있다+어느 정도 알고 있다), **비인지 79.5**%(들어본 적 있다+전혀 모른다)

▶ **한국사회 중요이슈**

일자리 창출 **34.2**%, 경제 민주화 **19.0**%, 소득재분배 **12.3**%, 남북관계 및 안보 **10.9**%

8월 주요 이슈

8월 16일 국정원 국회 국정조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석, 증인 선서는 거부
정부, 북에 이산가족 상봉 위한 실무회담 제의

8월 17일 로버트 메넨데즈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방한

8월 18일 북,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 수용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 제안
한미 연합군사훈련(UFG) 실시

8월 19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한 · 일 정상회담 제의

8월 20일 UN 북한인권위원회, 서울에서 탈북민 공청회 개최

8월 22일 개성공단 입주업체 공단 재가동 위해 방북
한미 방위비분담 3차 협상

8월 23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 개최 및 추석 상봉 합의

8월 25일 존 매케인 연방상원의원 방한

8월 26일 새누리당, 국회 상임위 단독 개최
양건 감사원장 사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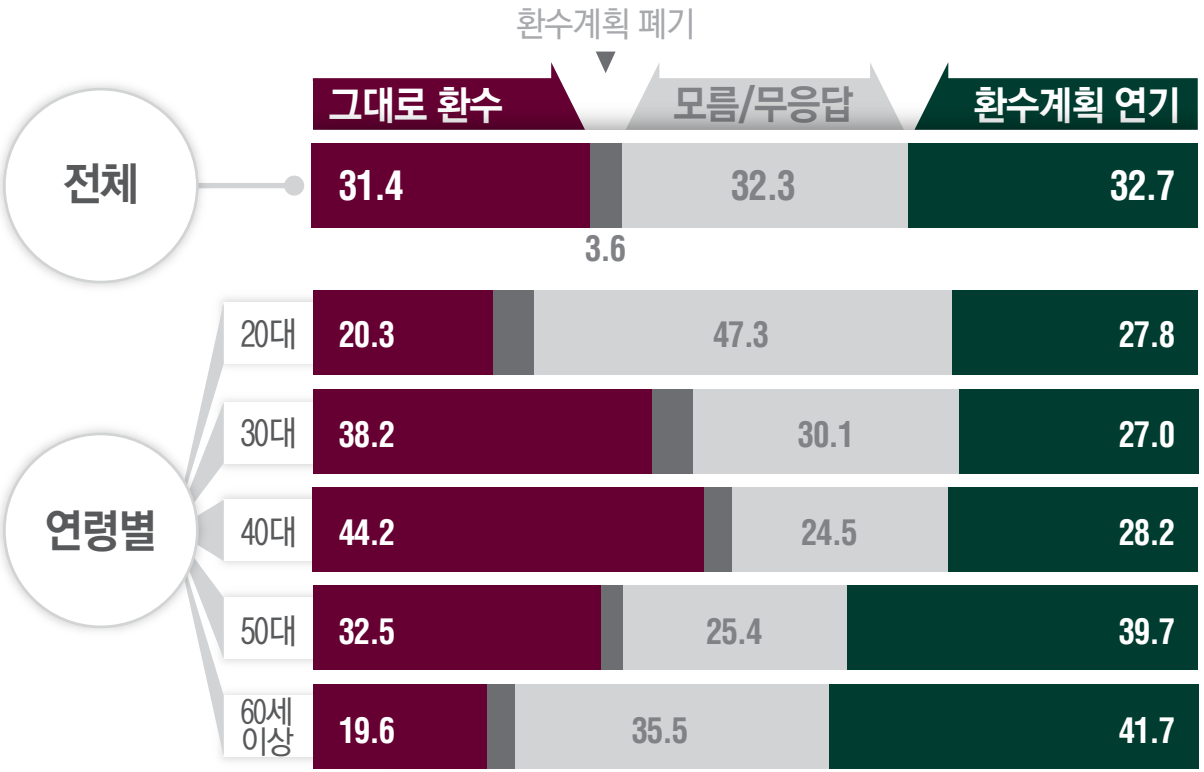
8월 28일 국정원, 검찰 등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자택 및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한미 전작권 연기 전제 논의 중이라고 발표
박근혜 대통령, 10대 그룹 총수 회동
정부, 전월세 대책 발표

8월 29일 남북, 이산 상봉 예비명단 교환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의견(1/2)

조사기간 8월 15~17일, 단위 (%)

Q 우리나라와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 말로 한 차례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에 예정대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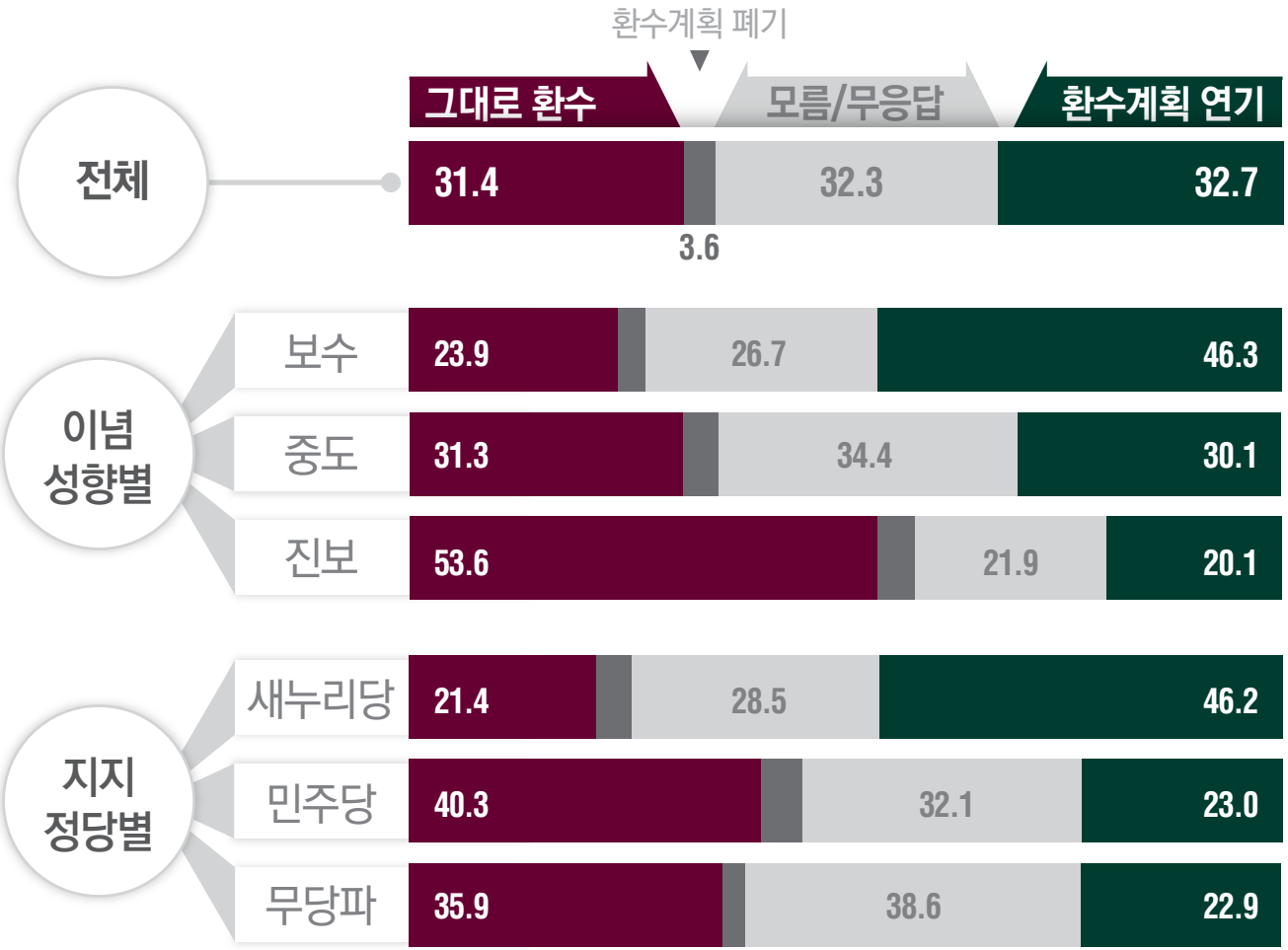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시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8월 28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회담 직후 "전작권 전환시기의 연기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5월에도 척 헤이글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환수시기의 재연기를 요청한바 있다. 한국인 세 명 중 한 명(32.3%)은 전작권 환수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거나 답변하지 않았다. 국가 안보에 있어 전작권 반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 국민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전작권 환수에 대해 특정 입장을 표명한 경우, 현행과 같이 2015년에 환수해야 한다 31.4%, 환수계획을 연기해야 한다가 32.7%로 양분되고 있었으며 환수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3.6%로 미미했다.

30대와 40대는 기존의 전작권 환수시기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환수계획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3040세대와 5060세대는 전작권 환수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20대는 전체의 47.3%가 모름/무응답으로 전작권 환수 이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의견(2/2)

조사기간 8월 15~17일, 단위 (%)

Q 우리나라와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 말로 한 차례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에 예정대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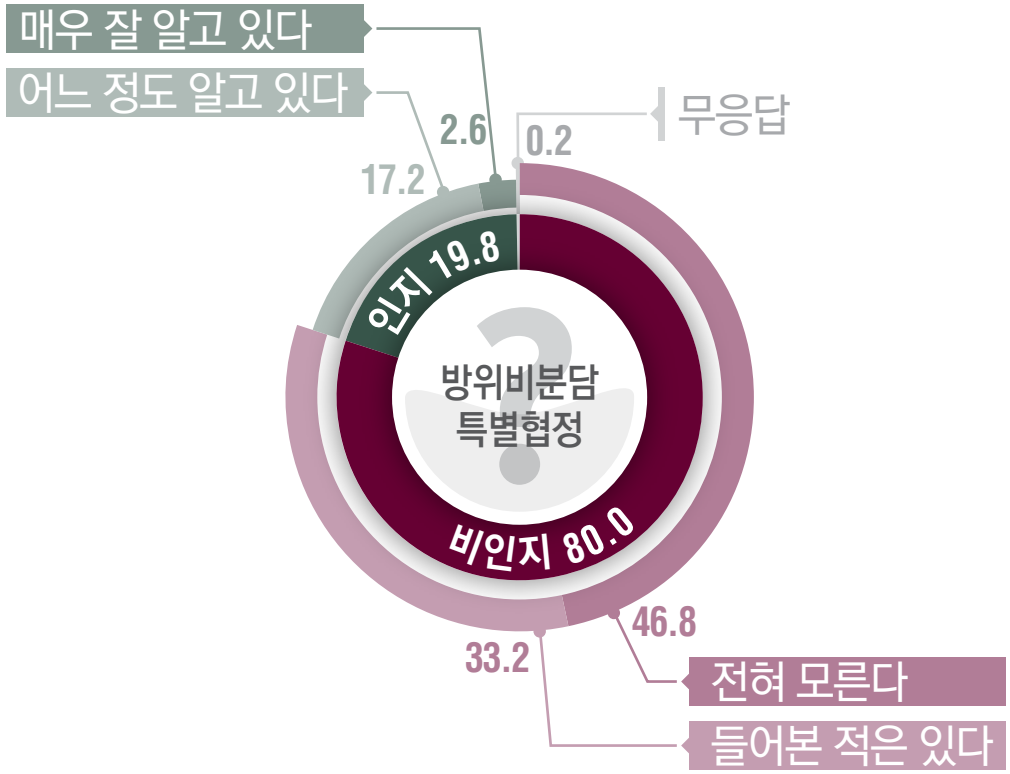
한국인은 이념성향과 정파성에 따라 전작권 환수시기를 다르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전작권을 우리 군에 이양하는 시기를 2015년에서 재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46.3%로 가장 높았다. 진보층 53.6%가 예정대로 2015년에 전작권을 이양 받아야 한다고 봤다. 새누리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의견이 상반됐다. 새누리당 지지층의 46.2%가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야 하는 것으로 본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40.3%는 기존 환수시기를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는 38.6%가 모름/무응답으로 답변을 유보하며, 정당지지자에 비해 전작권 환수 이슈에 대한 관심이 덜 한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국내 정치권과 여론이 전작권 환수를 두고 양분된 가운데, 정작 미국에서는 전작권을 예정대로 2015년에 한국군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전작권 이양을 둘러싼 양국 협상의 귀추가 주목된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및 한미 원자력협정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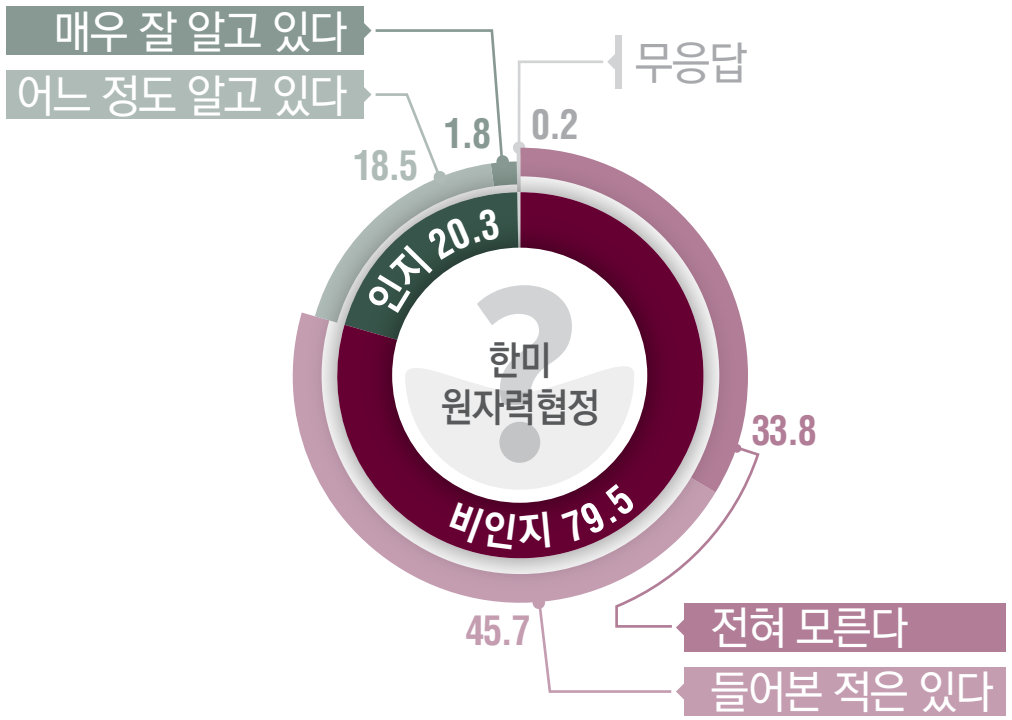
조사기간 8월 15~17일, 단위 (%)

Q 선생님께서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 Agreement)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조사기간 8월 15~17일, 단위 (%)

Q 우리나라와 미국은 현재 원자력협정 개정을 놓고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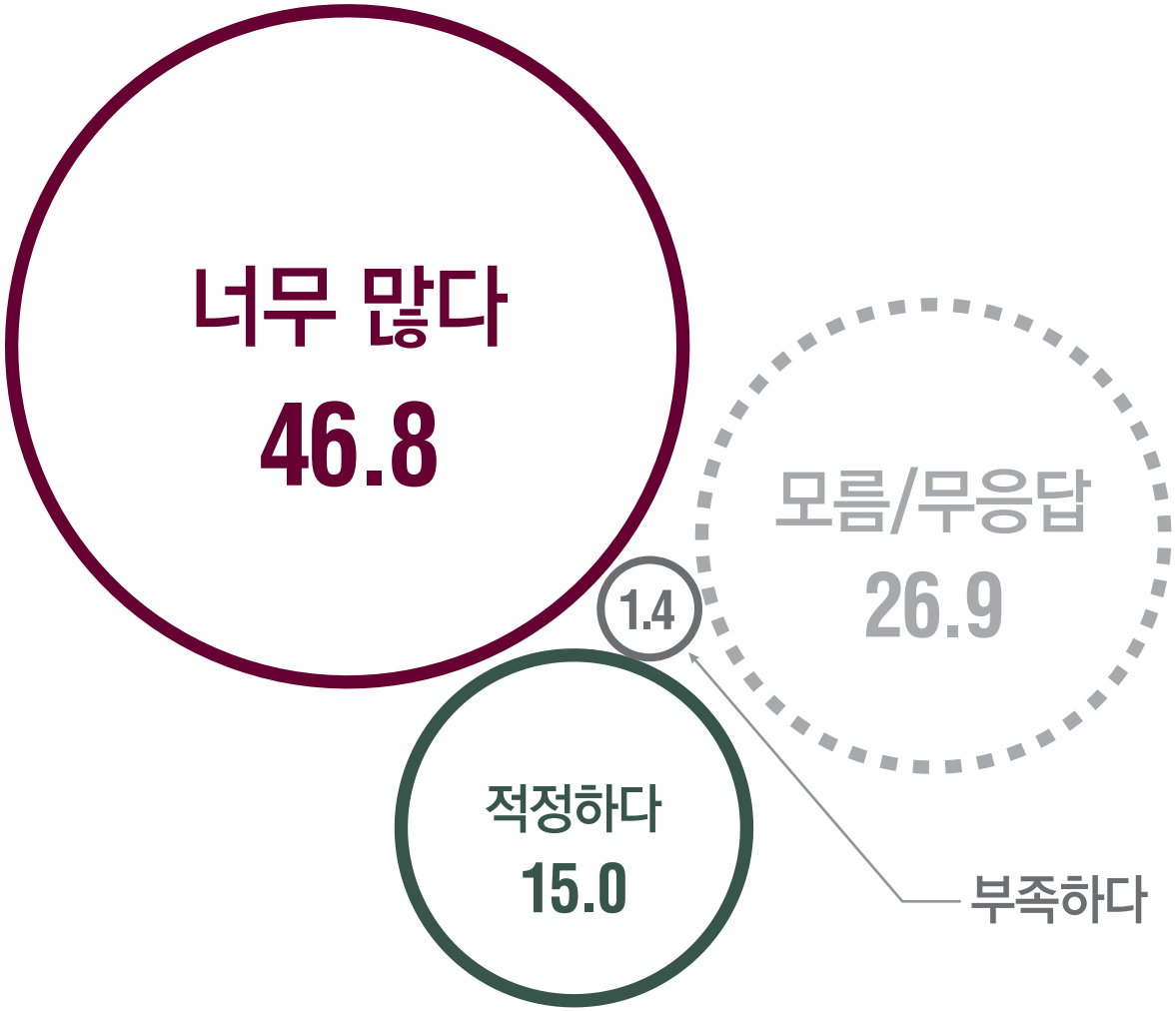
현재 워싱턴과 서울을 잇는 외교라인에서 가장 주요한 의제로 다뤄지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 물어봤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한국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한미 원자력협정(123 Agreement)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한국인은 열 명중 두 명에 불과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모른다, 즉 "들어본 적은 있다" 와 "전혀 모른다" 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80.0%, 79.5%로 국민 대다수는 두 이슈에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현재 외교 당국이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제가 일반 국민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의견

조사기간 8월 15~17일, **단위** (%)

Q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의 한국측 분담비율은 42%로 우리나라는 올해 방위비분담금으로 8,695억 원을 미국에 지원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우리나라와 미국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50% 분담 원칙론을 들며 1조원 이상의 방위비분담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방위비분담금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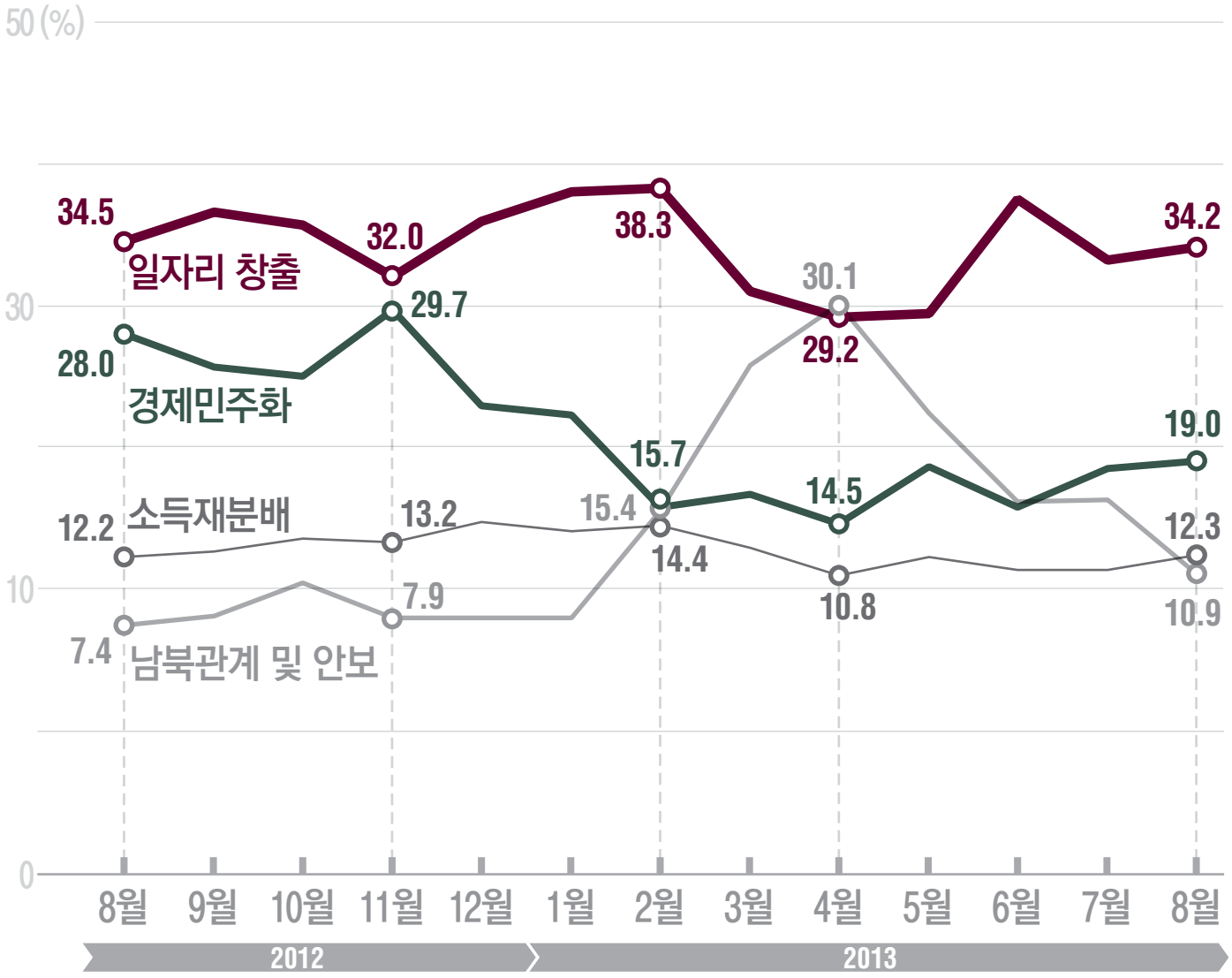
추가로 방위비 분담금 규모 및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56.6%는 미국측이 요구한 방위비분담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비분담금 규모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연령대, 이념성향, 지지정당과 관계없이 높았다.

방위비분담금 규모에 대해 특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비율(모름/무응답)은 26.9%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외에 방위비분담금 규모가 적정하다는 의견과 부족하다는 의견은 각각 15.0%, 1.4%에 불과했다.

한국사회 중요이슈

조사기간 8월 21~23일, 단위 (%)

Q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년 간의 한국사회 중요이슈에 대한 평가는 남북관계 및 안보 이슈의 중요도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던 올 2월부터 급상승했던 안보이슈의 중요도는 지난 4월,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8월 안보이슈의 중요도는 주요이슈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남북간 대화가 활성화 되며 안보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빠르게 식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민주화 이슈는 일자리 창출(34.2%)에 이어 오랜기간 높은 관심을 받은 이슈이다. 근래 안보이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낮아지면서 우리 국민이 보는 경제민주화의 중요도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19.0%로 나타났다.



110-06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76번지 아산정책연구원 TEL 82-2-730-5842 FAX 82-2-730-5876 www.asaninst.org

COPYRIGHT ⓒ THE ASAN ISTITUTE FOR POLICY STUDIES ALL RIGHT RESERVED